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제주 대표 브랜드 공연

# 제주 문화 알리기나, 지역 예술인 역량 강화나

서귀포시 오페라 '이중섭' 제작 제주시 창작 뮤지컬 '만덕' 이어 제주시도 뮤지컬 대본 공모 나서

민간 지원 생생내기 논란 속에 "지속 보완 공연 기획은 긍정적"

서귀포시는 2016년 창작 오페레타로 출발해 오페라 '이중섭'을 낳았다. 제주시는 창작 뮤지컬 '만덕' 제작에 나서 2018년 첫 공연을 올렸다.

▶공립예술단 협업 여건부터 만들어야=그동안 지자체가 주도하는 창작 공연 제작 과정을 지켜본 이들은 무대가 많아지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지역 예술인들에게 낭패감만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 둘이 동행하면 좋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지자체의 추진 방식은 그러질 못했다. 제주 문화관광 상품으로 상실 공연하겠다고 밝혔으면서도 유명 배우나 제작사를 끌어들이 단기간에 성과를 과시하려는 사례가 있었다.

도내 한 공연예술인은 "추진위원회에 구색맞추기로 제주 문화계 인사를 앉히지만 기획 단계부터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 말했다. 또다른 공연예술인은 "앞서 '만덕'을 공연할 때 제주시가 관리하는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이 빠져"며 "공립예술단을 포함 지역 예술인들이 협업할 수 있는 여건부터 갖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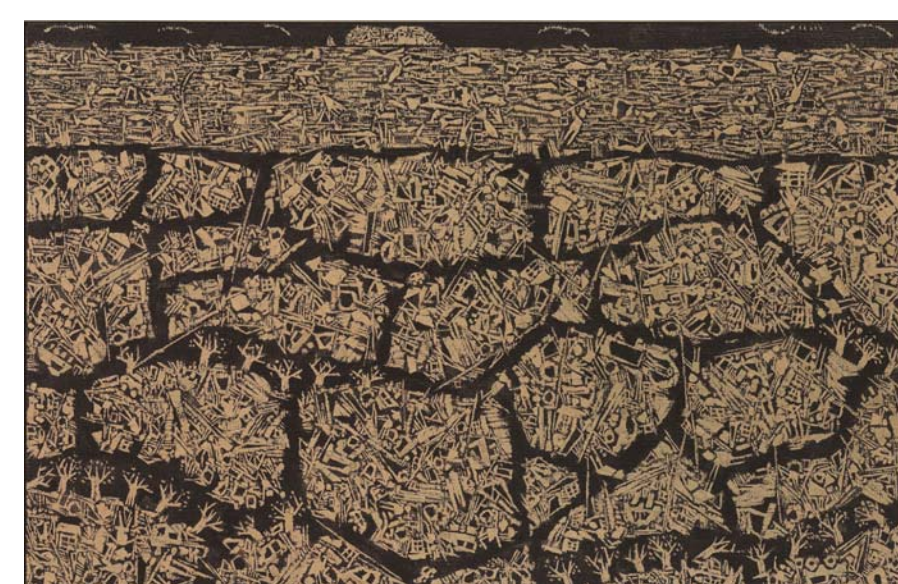
▶제주 연극인들 공연 완성도 기대감=일마 전 문화의 날을 전후로 제주아트센터에서 제주시 지원으로 지역 공연예술인들의 무대가 잇따랐다. 지난 17-18일에는 한국연극협회 제주도지회가 창작 연극 '섬에서 사랑을 찾다'를 선보였고 20일에는 음악협회제주도지회가 오페라 '마술피리'를 공연했다.

'섬에서 사랑을 찾다'는 지난해 1억원에 이어 올해 9000만원이 투입됐다. 제주시는 내년에 또다시 1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마술피리'는 5000만원을 배정했고

내년에도 동일한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재공연된 '섬에서 사랑을 찾다'는 배우들의 성장이 눈에 띄었지만 극이 2시간 가까운 탓인지 전제가 다소 산만하고 두 주인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어색한 제주방언 처리, 주막 등 제주색과 동떨어진 세트도 개선이 필요해보였다.

지역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능력을 키운다는 공모 취지에 비해 지원 규모가 작고 생생내기 논란마저 있지만 2년 연속 창작 연극을 가꿔가고 있는 제주연극협회는 일단 고무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제주연극협회 관계자는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꾸준히 공연 기회를 갖고 경험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며 "다시 한번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에 더 밀도 높은 무대로 관객들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정형준의 '흙 놀이-문섬과 돌담'.

## 흙 놀이로 빚어낸 고향 제주 이야기

현인갤러리 정형준 초대전 평생 받을 일귀은 어머니 등 유년의 기억과 닿은 흙 놀이

그에게 흙은 고향 제주의 또다른 이름이다. 말랑말랑한 감촉의 흙덩어리를 손으로 만지고 있으면 어느새 그의 머릿속은 유년의 어느 날에 가닿는다. 거기엔 8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 섬없이 밭을 일궈낸 어머니가 있다. 도시 계획으로 헐릴 위기에 있는 집을 지켜낸 아버지가 있다. 제주시 이화오피스텔 2층에 있는 현인갤러리(관장 김형무) 초대로 개인전을 열고 있는 정형준 작가다.

섬을 그리다' 전부터 제주 이야기가 도드라지기 시작했다.

그의 작업은 대부분 흙을 재료로 쓴다. 어머니 일을 돕는 등 제주에서 겪었던 갖은 경험을 유화적 놀이로 승화시켜 작품으로 풀어냈다. 그것은 때때로 형상이 있는 조각이 되거나 일그러진 물성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그는 마대 천을 캔버스만이 아니라 일종의 오브제처럼 사용해왔다. 마대 천에 구멍을 내 굳히는 방법으로 비정형의 형태를 만드는 방식이다. 흙으로 그려낸 평면 회화를 넘어 오브제, 설치, 영상으로 작업 영역을 넓혀온 그의 개인전은 이번이 열여덟 번째다. 고향에서 갖는 첫 개인전으로 '제주상록작전-경계에 서서...'란 제목에서 짐작하듯 이 전시를 통해 활동 무대를 제주로 옮기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도록에도 서귀포시 토평등을 주소로 썼다. 전시는 이달 25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4)741-1500. 전선희기자

## 두 발로 누빈 제주섬 화첩에 담다

유창훈 작가 '제주기행...' 현장 사생한 수묵담채 등

제주 전업작가인 유창훈씨가 제주국 제컨벤션센터 갤러리 ICC제주에서 '제주기행 화첩전'을 열고 있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개인전은 유창훈 작가가 현장에서 만난 제주

풍광을 담아낸 작품으로 채워지고 있다. 유 작가는 몇 해전부터 기획 있을 때마다 한라산, 오름, 폭포 등을 찾아 현장 스케치를 벌여왔다.

한지를 이용한 한국화의 특성상 현장 사생이 쉽지 않았고 때로는 손 대신 바람이 붓을 잡는 듯 했다. 하지만 유 작가는 그같은 어려움 끝에 탄생한 '제주기행 화첩'이 제주 자연



유창훈의 '한라산-삼의악오름에서'.

에 대한 고마움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전시는 이달 31일까지 이어진다. 문의 064)735-1000. 전선희기자

## 문화가 쏘지

### 아홉 번째 동심목연전

제9회 동심목연전이 지난 19일부터 문예회관 2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20명 가까운 동심목연회 회원들이 참여해 한문 서체로 배움의 즐거움을 나누고 있다. 김금숙 회장은 "글씨를 쓰고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선각자들의 삶과 성정을 배우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전시는 이달 24일까지. 문예회관 전시가 끝이 나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농협 관덕로 지점 로비로 옮겨 2차 전시를 이어간다.

### 제주·인천 문화교류전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원장 현행복)은 지난 19일부터 '제주-인천 문화교류전'을 열고 있다. 이달 24일까지 이어지는 교류전에는 사단법인 한국문화협회 제주지회와 인천지회 작가 70여명이 참여해 사군자, 산수화, 화조화를 펼쳐놓는다. 제주-인천 문화교류전은 2005년 이후 두 번째다. 김미형 한국문화협회 제주지회장은 "제주-인천 두 지역의 폭넓은 문화적인 특성을 비교 융합함으로써 예술적 안목을 넓히는 전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 오소리 차와 명상 축제

오소리 취다선 명상센터에서 이달 25일 오후 7시30분 '나를 비추다'란 이름의 차(茶)와 명상 축제가 열린다. 이날 축제는 김백기 연출로 안지석(현대무용), 은숙(판소리, 보이즈), 극근섬(감성무), 박인화(명상춤), 이한주(실용음악), 지오(부토), 스페인의 미진티(부토), 몽골의 오토곤(해금), 캐나다의 나단(디지리두, 라이브페인팅), 포르투갈의 길헤르메(첼로) 공연이 이어진다. 취다선의 안대진 선생은 라이브페인팅을 펼친다. 문의 735-1600.

### 숲속 콘서트 '노고록이'

숲속 힐링 콘서트 '노고록이' 일곱 번째 무대가 이달 26일 오후 2시 사려니숲길 붉은오름 일구에서 펼쳐진다. 이날 콘서트 주제는 '나에게로' 정해졌다. 피아노 트리오와 듀엣, 성악 테너, 플루트, 아코디언 연주 등으로 '걱정 말아요 그대', '겨울의 꿈',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을 들려준다. 어르신 그림책 낭독, 관객 시낭송, 음악으로 소개하는 그림책 공연, 그림책 전시, 실크스크린 체험, 빙떡 시식회 등도 있다. 문의 064)760-3067.

## 대정 유배지서 추사와 현대미술의 만남

추사와 현대미술 작가들이 시간을 거슬러 한 공간에서 만나고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추사관에서 진행 중인 '2019 추사에게 새로운 길을 묻다' 기획전을 통해서다. 이번 전시는 추사가 고된 귀양살이를 거치며 세한도와 추사체를 완성한 유배 공간에서 추사 김정희와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나란히 펼쳐놓고 있다. 시·공간을 초월한 예술작품의 새로운 만남을 꾀하기 위해 대정의 창작공간 '풍낭아래굴림'과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다. 출품자는 김상우, 김수정, 김지섭.

류현숙, 마이클 위틀, 이유진, 장은경, 정명국, 정민주, 최인엽, 현승의 등 10명에 이른다. '풍낭아래굴림' 아트캠프와 레지던시에 참여한 작가들이다. 이들은 추사의 제주 유배를 모티브로 창작한 여러 빛깔의 작품 20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는 11월 17일까지 계속된다. 제주추사관은 이 전시에 이어 내년에는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서울 예술의전당, 경기 과천시, 충남 예산군 등과 특별기획전을 벌일 예정이다. 문의 064)710-6802.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감귤국제마라톤 <http://marathon.ihalla.com>

### 2019 제주감귤국제마라톤대회

**EVENT!**

- 해이 마라톤 초청 특전 일본 애플 마라톤 무료참가 기회
- 클럽동호회 20인 이상 개별부스 제공 (사전 신청한 단체팀에 한함, 단 5km 제외)
- 클럽동호회 훈련비 지원 (음, 허브, 10km 참가자 기준)

마라톤은 스포츠가 아니다! 내 인생의 과정이 담긴 철학이다!!

## 2019 제주감귤국제마라톤 개최를 축하합니다.

**제17회** *The 17th Halla Marathon*

# 2019 제주감귤국제마라톤

**2019.11.10(일) 오전 9:00**  
조천운동장~월정리해안도로 방향 왕복

코스 | 하프코스|10km|5km

- 주최 | 한리일보사, (사)제주감귤연합회(농협)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육상연맹
-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문의 제주감귤국제마라톤 사무국 T.064-750-2291



**한라기척**

(주)카리반 제주총판, (주)대원리저 제주총판  
풍물헌막, 자바라, 각종 행사천막 제작·판매·대여 각종 행사, 단체식사 주문환영(특대저비배유전문)

대표 김봉근

**종합이벤트**

- 사무실 : 744-6688
- FAX : 749-8668
- H·P : 010-2623-6688
- jejuhanla@daum.net